한강(漢江)의 역사문화경관 연구

- 조선시대 경강(京江) 동호(東湖)지역(地域)을 대상으로 -

김선화* · 이재근**

*상명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A Study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of Han River - Around East Lake of Kyung River in Joseon Dynasty -

Kim, Sun-Hwa* · Lee, Jae-Keun**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ersity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historic cultural landscape of East lake in Kyung river area during Joseon dynasty was very outstanding that it had many attractions of scenic beauty, however, the Han river of today is being recognized as a natural landscape and as a place with low cultural and historical traits. This study applied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al space of Joseon Dynasty on visual image elements of Lynch to research the landscape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When East lake was applied to visual image elements, it was recognized as a 'superb' 'paths,' and the 'edge' which signifies the boundary showed its 'superb' clarity of the East lake. For the 'node,' a turning point of direction, Dumopo represented the 'superb' awareness. As East lake, Apgujung, and Jecheonjung represented the 'superb' awareness when 'landmark' among visual image elements of Lynch was applied to the cultural space, the awareness level and reputation were proportional to the visual image elements. When pattern, structure, and meaning of the cultural space were clear and had definite identity, the 'landmark' and 'district' elements were 'superb.' It was also identified that when awareness level of space was higher, the awareness of historic cultural landscape was high as well. Therefore, considering visual awareness level of the historic cultural landscape of Han river during restoration to investigate and to conduct case studies is considered to increase the awareness level of historicity and cultural character as well as restoration of the place.

Key Words: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Kyung River, East Lake, Lynch, Visual Image

국문초록

조선시대 경강 동호지역은 역사와 문화적 요소가 풍부하여 역사문화경관의 명승명소가 많았으나 현대 한강은 자연경관에 비해서 문화성과 역사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강이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적 요소를 한강의 경관에 적용하고자 조선시대 문화공간의 경관 특성을 린치의 시각적 이미지요소에 적용하여 경관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호를 시각적 이미지 요소에 적용했을 때 '통로'로서 높게 인식되었고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경계'의 명료성 또한 동호가 높게 인식되었다. 방향 전환점인 '결절점'은 두모포가 인지도에서 우수하게 나타났다. 린치의 시각적 이미지 요소에서 '랜드마크'를 문화공간에 적용했을 때 경강 동호, 압구정, 제천정이 우월한 인지도를 보임으로써 역사문화경관의 지명도와 명성은 시각적 이미지 요소에 비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화공간의 패턴, 구조, 의미가 명료하고 정체성이 확실할수록 '랜드마크'와 '지역'요소가 높게 인식되었다. 공간의 지명도가 높을수록 역사문화경관의 인지도가 높았다. 그러므로

* Corresponding author : Lee, Jae-Keun,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Sangmyung University, Cheonan 330-720, South Korea, Phone : +82-41-550-5302, Fax : +82-41-550-5305, E-mail : jklee@smu.ac.kr, 본 논문은 2013년 상명대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한강의 역사문화경관 복원 시 시각적 인지도를 고려하여 조사하고 사례연구 함으로써 장소의 복원과 함께 역사성과 문화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역사문화경관, 경강, 동호, 린치, 시각적 이미지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조선시대 한양도성은 경도(京都)¹⁾ 였고 그 남쪽을 흐르는 한강은 경강(京江)²⁾이었다. 경강은 경도를 중심으로 동호, 남호와 서호로 불려졌다. 연구 대상지인 한강 문화공간은 동호와 동호 주변 지역의 삶의 문화가 있었던 장소로 한정한다.

한강(漢江)은 서울 북동쪽 강원도 태백시 금대산 검룡소에 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서해로 흘러가는 498km에 달하는³⁾ 물줄기이며, 조선시대에는 한양도성(漢陽都城) 성저십리(城底十里)의 남쪽경계를 흐르는 경도(京都)의 외명당수(外明堂水)로서 물길을 이용한 교통·경제·군사적 요충지 외에 수경관(水景觀)을 즐기는 풍류의 문화공간⁴⁾이었다. 성리학(性理學)의 기반위에 사의적인 삶을 지향하는 조선시대의 문인묵객들에게 한강의 수경관은 물, 빛과 바람 등 자연환경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된 모습으로 흘러가는 물결 따라 삶의 또 다른 사유의 의미와 자연풍광을 부여하는 주요 경관자원이었다.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교적인 관념과 신선사상(神仙思想), 자연숭배와 풍수지리(風水地理)사상은 불교와 유교사상과 함께 조선을 지배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었다. 한강은 도성과 가까운 명소였기에 왕실과 사대부들의 별장과 별서가 세워져 연회, 사신접대, 전별연, 뱃놀이, 낚시, 시회, 제회, 모임 등의 문화공간이었다.

조선시대 한성의 동교(東郊) 지역은 경강 동호의 수로 교통과 물자 수송의 기점이자 왕실의 물자를 조달하는 목장, 채마, 과원, 빙고를 비롯해 독서당 등이 세워졌고, 성 밖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었다. 한강하류인 동호는 중랑천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속도가 느려지며 오랜 시간 퇴적작용으로 인해 백사장(白沙場)이 형성되었고, 우기 때 홍수가 나면 수면에 잠기기도 하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강 안과 연안에는 퇴적·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자연제방, 평야, 벼랑, 대 또는 산언덕이 솟아있고 백사장 등 저지대의 나루터에서 길을 따라 산언덕을 오르면 조망점이 형성되는 승경지였으며 하중도인 섬이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한양도성 주위의 외사산과 내사산 능선을 따라 병풍처럼 주위를 감싸는 풍광을 이루었다. 문헌상에는 신라시대부터 한강 홍수가 기록되고 있지만, 특히 1925년 을축년 대

홍수는 한강에 제방을 쌓아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치수정책의 시발점이 되는 자연재난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한강철교 건설과 한강 수변의 위락공간인 공원조성을 시작으로 1950년의 한국전쟁은 한강과 주변의 변화를 초래했다. 서울시의 인구증가, 행정구역의 확장에 따른 교량·도로건설과 택지조성 등 1960년대 이후 진행된 한강개발사업과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한강에 상당한 변화를 주면서 시대의 요구에 따른 치수, 이수, 친수 정책을 시행해 왔고, 수변에는 공원, 수영장, 운동과 휴식시설 등 현대적인 문화공간이 조성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역사문화경관의 특성이 손실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 공생하는 한강 만들기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한강의 녹지·수질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해 하천 스스로 제 모습을 찾아가도록 자연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입안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자연생태계와 인간 삶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한강의 수체계(水體系)복원 계획이다. 그 중 '중랑천 합류부 생태거점 조성지역'은 조선시대 한성의 동교지역이고, 한강 하류와 만나는 지형 특성상 수운이용이 활발했던 경강의 동호지역이다. 당시 제천정, 동호독서당, 입석포, 두모포, 무수막나루, 전곶평, 독섬, 저자도, 낙천정, 압구정 등은 자연환경에 따라 삶의 터전이 형성된 문화공간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대변천에 따른 개발로 이 지역은 상전벽해되어 옛 경관은 사라졌다. 그러나 한강이 아직도 유유히 흐르고 이 지역 문화는 문헌, 그림과 지도에 비가시적인 형태로 남아 있으므로 앞으로 수계복원 시 역사문화경관의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상지의 문화공간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문화공간의 인지도 관점에서 시각적 이미지 분석을 하였다. 현재 이 지역의 문화공간은 소멸되거나 사라져 문헌상에 기록으로만 남아있다는 장소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문화공간의 인지도 고찰을 위한 시각적 이미지 분석은 선행연구의 과정에서 조사된 장소적 특성을 경관텍스트⁵⁾로 하여 연구자의 시각에서 이미지 분석을 하였다. 분석방법은 린치(1960)의 시각적 경관 이미지, 즉, 통로, 경계, 지역, 결절점과 랜드마크 각 요소에 선정된 문화공간의 특성을 정성적으로 대입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각 문화공간의 기능, 지명도 등의 장소성 관점에서 해석하여 역사문화경관을 조명하였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경강 동호의 문

화공간'을 '동호 문화공간'으로 서술하였다.

2. 이론적 고찰 및 관련 연구

1) 이론적 고찰

선사시대 이래 한강은 우리 삶의 중요한 터전으로 인식되어 많은 역사유적이 남아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한강은 한성의 주요 물길로서 더욱 그 의미가 있었다. 그러므로 한강 주변의 경승지는 왕실관련 시설들이 많이 조성되었고 행사가 빈번한 장소였다. 한강은 도성주변을 감싸고 흐르는 큰 강으로서 조선의 도읍 이미지에 물리적·심리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는 자연경관 자원이었다. 당시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세워지지 않았고 건축물과 시설물은 자연 지세에 따라 형성되었기에 조선시대 한강은 자연지형에 인공문화가 기대 자연스런 역사문화경관이였다. 그러므로 당시 한강 지역의 시각적 이미지는 수계의 연속경관 속에서 강 폭, 강 연안의 지형과 강물의 방향에 따른 물의 흐름을 비롯하여 주위 산수의 지형과 지세, 인공물의 형상과 공간의 이용기능에 따라 물리적·심리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조선시대 한강 주변 지역의 명승·명소와 관련한 문헌·시문·그림을 보면 역사·문화 경관이 뛰어남을 알 수 있지만 현대 한강은 교량과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이 들어섬으로써 내재된 역사·문화경관을 상실한 채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자연하천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서울시 대표경관 인지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강은 선행 연구에서는 "경관 자원분류체계 중 도시경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서울시 도시 대표경관 자원 2위에 속하고 수평형 자연경관형에 속하는"(이찬영, 2010:77, 80) 특성을 보였다. 또한 "한강의 인지요인은 가시성·규모성·대중성(1순위), 심미성(2순위), 접근성(3순위), 차별성·문화성(5순위)과 역사성(6순위)"(이찬영, 2010: 80)으로서 오랜 문화와 역사가 있음에도 문화성과 역사성에서 인지도가 낮게 나왔다. 그러나 설문 조사를 통한 연구결과에서 자연경관인 한강은 대표경관 6위에 머물렀고 역사경관인 경복궁이 1위였다. 연구결과 역사문화경관이 자연경관의 인지도를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함께 한강 지역 역사문화경관의 복원도 시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이다.

1960년대 이후 한강개발과 함께 서울의 경관이 변화해가는 시점을 전후해서 미국에서도 도시경관과 관련한 연구가 있었다. 린치(1960)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도시 경관의 시각적 이미지 요소를 한강의 경관이 변하기 전의 공간에 접목하여 분석하고, 공간의 활용과 시각적 이미지 관계를 해석함은 한강 경관의 시각적 이미지 회복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린치(1960)는 시각적인 명료성, 이미지 조성과 함께 환경의

정체성·구조·의미의 세요소를 들어 도시의 이미지를 분석하였으며, 정체성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고유인 특성, 구조는 관찰자가 보는 패턴 그리고 기억의 결과인 의미 이 세 요소가 시각적인 이미지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물리적 형태는 ① 통로, ② 경계, ③ 지역, ④ 결절점, ⑤ 랜드마크이며, 각 요소는 "연관과 맥락의 관점에서 관찰자에게 연상과 인지작용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인식하면 의미와 연관성을 부여하게 되어 실수하지 않고 확실한 이미지를 갖는 진정한 장소로 인식된다."고 서술하였다. 본 연구는 경관의 시각적 이미지 분석이라는 한계를 딛고 이 후 다양하게 접목되고 발전하여 경관 분석에서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지 역사문화경관의 시각적 이미지를 파악하여 인지도와 장소적 특성을 조명하기 위해 린치의 시각적 이미지요소를 적용하였다.

2) 관련 연구

조선시대 한강 지역의 시문, 그림, 경관변천에 대한 연구로는 한강 누정과 사신 접대를 포함한 왕실의 행사관련 연구들과 한강의 섬(윤진영 외 6인, 2009)에 대한 연구가 있고, 한강그림 연구에서 동호를 그린 그림은 독서당계회도와 압구정 그림이 대표적이며(김지희, 2006), 관련연구를 표로 정리하였다.

표 1. 관련 연구

구분	연구자	년도	내용
경관 관련	린치	1960	경관을 '명료성, 구조, 의미의 관점에서 인지하고 시각적 이미지 요소로 조사하여 각 요소의 연관·맥락의 측면에서 시각적 인지도가 높을 때 진정한 장소다'라고 하였음.
	이찬영 외 1인	2010	서울시 대표경관 인지요인들을 종합·분석하여 유형별 요인과 대표경관 인지도 순위 조사를 하였음. 결과, 역사·시가지 경관형의 부상과 자연경관형이 약세를 보임.
	문향원	2010	서울 한강변 아파트를 대상으로 경관의 시각적 선호도 조사를 위해 설문지 조사와 경관분석을 하였음.
	여화선	2012	도시 역사문화경관의 경관 이미지 및 시각적 선호도 분석을 위해 사진을 통한 경관이미지 특성을 분석하고 설문을 통해 경관선호도 분석을 하였음.
한강 관련	이종목	2001	조선시대 한강 서호·동호의 명승·명소에서 있었던 연회·계회·시회를 통해 당시 한강의 역사문화경관지역의 중심이었음을 연구하였음.
	홍금수	2006	조선시대 전포장 지역의 경관변화를 시대별로 조사하여 각 장소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전통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향 후 장소의 보전과 전통을 살리는데 필요한 기초연구를 하였음.
	소현수 외 2인	2007	거창 누정 원림을 사례로 전통 경관을 생태학적 원리와 특성으로 해석하여 전통생태의 구체화를 시도하였다. 가장 선호되는 누정 입지는 물이 보이는 모퉁이 언덕의 조망권이 넓은 지역임을 서술하였음.
	이종목	2008	성종을 비롯한 왕들의 어제시 연구를 통해 신화와 소통하거나 학문과 문학의 진흥을 시도한 그 양상과 의미를 살렸음.
	노재현 외 1인	2011	한강 변 청심루와 여주팔경의 시문·지도·그림의 분석과 해석방법으로 경관구조를 고찰 하였음.
	이국진	2011	명나라 사진들의 한강 유람과 당시 함께 화답한 시문 등을 통해 조선시대 한강이 교통·경제·군사적 요충지 외에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음을 연구하였음.

경관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으나 특히 2007년 경관법 제정 이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한강 지역과 도시의 경관관련 연구는 경관형용사 어의구별 척도화에 따른 시각적 선호이미지를 중심으로 사진과 설문지를 활용한 분석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관련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한강의 문화공간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산수와 동시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경관 지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연구방법

동호 역사문화경관을 조명하기 위해 첫째, 동호 문화공간을 선정하여 분류하였고, 제 특성을 조사하였다. 선정기준은 관련 연구를 통한 문헌·시문·그림에 등장하는 공간의 지명도를 기준으로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둘째, 현대적인 시각에서 한강의 역사문화경관의 시각적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린치의 시각적 이론을 바탕으로 각 요소를 상·중·하로 구분하였다. 린치가 선정한 경관의 시각적 이미지 요소들과 문화공간 특성의 맥락을 표로 만들어 시각적 이미지를 파악하였다. 셋째, 문화공간의 변천을 통한 역사문화경관을 장소성(場所性)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연구 설정은, ① 오랜 세월의 변천에 따라 대상지는 상전벽해(桑田碧海) 되었지만 한강이 흐르는 한 대상지에는 역사문화경관이 내재 되어있고, 물만 흐르는 듯 보이는 그 곳에는 켜켜이 축적되어온 장소성이 있으며 ② 공간의 특성상 시각적 이미지 분석은 연구자의 시각에서 이미지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기초 문헌자료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국역편을 조사하였다(한국고전종합DB).

표 2. 시각적 이미지요소

구분	통로	경계	지역	결절점	랜드마크
정의	도로, 수로	가장자리	영역	전환점	지표물
상	=	●	■	◆	★
중	—	◎	▣	◆	✱
하	—	○	□	◇	♡

(린치의 시각적 이미지 요소를 필자 재해석 한 것임)

표 3. 동호 문화공간 연구자료

종류	문헌	내용	비고
문헌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한성부 산천조, 누정조, 교량조, 제영, 문집 등	여말선초(麗末鮮初) 이후
회화	경교명승첩 등	압구정 그림, 도강도 등	
지도	경조오부도 등	서울의 한강 지역	

II. 동호 문화공간의 경관형성 배경

1. 동호 문화공간 형성의 동양적 사상

조선시대는 문화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특히 성리학(性理學)이 성행하였다. 공자의 유명한 문구인 “지자요수(知者樂水) 인자요산(仁者樂山)”에서 지자요수는 물이 갖는 이상적 상태를 비유한 것이다(임석재, 2006). 즉, 물의 흐름을 지혜로운 사람의 성정에 비유한 것이다. 유교에서 인(仁)은 중요한 덕목이었다. 물과 산을 감상하면서 활발한 사회활동이 이뤄지던 한강은 동시대 문화공간의 최적지였다. 중국으로부터 도교 불교 유교가 도입되기 전에 있어온 천지인의 삼신사상은 홍익인간의 이념에서 볼 수 있고, 지형적으로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신선사상과 풍수지리설에 따라 터를 잡는데 있어서 땅의 형국을 중요시했다. 중국에서 전해온 도학사상은 노자의 무위자연설⁶⁾에 의해 자연과 인간과의 합일을 중요시 했다. 우리 고유의 사상, 중국의 신선사상을 비롯해 무위자연으로 알려진 도학과 불교는 조선시대에 와서 국교인 유교의 영향아래 사상적으로 문화의 기틀을 잡아갔다. 그러나 공간을 조영할 때는 자연관에 입각하여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지향하였다. “무위이무불위(無爲以無不爲)”란 “불필요한 인공적 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것은 한다”는 자연스러움을 최고로 가르친다(임석재, 2006).

지식과 학식이 뛰어나고 문화적인 풍류를 즐기는 권문세도가(權門勢道家)와 문인묵객에게 입석포, 저자도, 동호독서당 등 경강 동호지역은 문화적인 공간이었고, 누정 또는 뱃놀이를 하며 연회나 시회를 열고 마음에 투영된 자연풍광을 중국 한시의 시제로 차운(次韻)하여 자연과 하나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즐거움을 작시하던 곳이었다. 이곳은 중국 사신들에게 널리 알려져 유람(遊覽)코스로 이용되었고, 특히 제천정(한강루)과 압구정은 즐겨 찾고 싶어 하는 명승지였다. 조선을 찾은 예겸(세종 32년, 1450), 기순(성종 7년, 1476), 화찰(華察, 중종 34년, 1539)⁷⁾ 등의 문인들이 황화집에 한강유람기를 남긴 것 중 화찰의 유한강기(遊漢江記)에는 누선을 타고 유람한 풍경이 있다.

한강이 왜 그토록 아름다운지를 묻는 화찰에게 역관은 “자연의 승경이 활기찬 대도시의 문명과 어우러진 한강의 아름다움은 앞서 살펴본 강들과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특별함”이라 말하였고, 조선의 승경은 “반드시 한강이어야 합니다(必也其漢江乎)”⁸⁾고 대답했다. 한강이 아름다운 것은 승경을 즐길 수 있는 사람 때문에 유명해진다는 뜻으로 한양도성이 가까이 있어 자연풍경이 문화경관으로 이름이 난다는 의미다. 즉, 중국의 “왕희지(王羲之)의 난정(蘭亭)이나 석숭(石崇)의 재택(梓澤)도 글이 없으면 빼어남을 잃는다”⁹⁾는 고사와도 통하는 말이다.

2. 동호 문화공간의 경관적 배경

서울시의 한강연장은 40km 정도로서 한강으로 불리지만 조선시대에는 왕의 권한이 미치는 경강(京江)이라 불렀다.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한강은 수평적 시각 요소로서 수직 요소인 주변 산세와 조화를 이뤄 풍광(風光)이 뛰어날 뿐더러 서해의 갈매기, 조운선, 계절·시간 따라 변하는 명승지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한성부에 '한양도성의 동편 두모포(豆毛浦) 지역을 동호(東湖)'라고 불렀으며 이 지역은 한양이 번성하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쪽에서 목재 등 땔감과 함께 경강의 조운과 물류가 많아짐에 따라 두모포가 번성하게 되었다.

두모포는 도성(都城)의 흥인지문(興仁之門)과 광희문(廣熙門)을 통해 사람들 왕래가 많았고, 중랑천(中浪川)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포구였다. 그 앞의 너른 삼각주인 저자도(楸子島)는 빼어난 승경으로 왕실과 사대부들의 정자와 별장들이 세워졌고, 경관은 시문과 겸재 정선의 그림과 계획도 등에 묘사돼 있다. 저자도는 여말선초 때 한중유(韓宗愈)의 별서터였으나 세종 때 정의공주에게 하사되고, 구한말에는 철종의 부마였던 박용효에게 압구정과 함께 하사되는 등 소유가 바뀌곤 했다. 전곶평(전곶진, 箭串陣)은 목초가 많이 자라 봄이면 상춘객들이 나들이를 하던 넓은 평야의 목마장이 있었다. 동호의 포구와 나루는 한강 남쪽으로 가기위해 전별(錢別)과 이별(離別)이 행해지던 장소였다. 왕실 누정인 화양정, 낙천정과 사신을 위한 연회가 열렸던 제천정이 있었고, 강 남쪽에는 압구정이 솟아있었다. 경강 동호는 내수인 청계천이 중랑천과 만나고 자연하천인 한강이 물목을 돌아와 느리게 흐르다 중랑천과 합류하는 지점이었기에 호수와 같이 물살이 잔잔하고 넓어서 동교(東郊)의 전곶평·저자도와 함께 강호(江湖)의 문화공간(文化空間)이자 명승지였다. 다음 지도에서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볼 때 우측 하단 두모포 지역이 경강 동호지역이다.

그림 1. 경강 동호의 위치

(자료 : 경조오부도, 1856년-1872년, 필자 재구성, 서울시지도 홈페이지)

III. 동호 문화공간의 경관적 특성

1. 동호 문화공간의 경관적 분류와 특성

1) 문화공간의 경관적 분류

조선시대 경강 동호는 한양도성 동남쪽을 흐르는 한강의 하류이고, 포구가 발달하여 많은 배들이 드나드는 승경지였다. 중랑천과 한강의 합류지점 부근에는 저자도와 강 주변 산언덕에 누정이 세워져 별장·별서의 탐승지로 유명했다.

그림 2. 문화공간의 경관분류에 따른 공간별 위치도

(경조오부도 위에 재구성, ① 경강동호, ② 두모포, ③ 입석포, ④ 전관원, ⑤ 전곶평, ⑥ 전곶평, ⑦ 동빙고, ⑧ 누정, ⑧-a 제천정, ⑧-b 압구정, ⑧-c 화양정, ⑧-d 낙천정, ⑨ 동호독서당, ⑩ 저자도, ⑪ 청계천, ⑫ 중랑천)

표 4는 경강 동호의 문화공간을 일련번호로 구분하였고, 공간별 위치와 특성을 작성한 것이다.

표 4. 문화공간의 경관적 분류

구분	문화공간	특성	시각적 이미지
①	경강동호	광진 - 남호(용산강) 물길, 한강 수계 두모개, 한양 동남쪽 5리 위치, 중랑천·한강 합류	통로, 경계
②	두모포		결절점, 지역
③	입석포	경도삼영(京道三詒), 입석포(立石浦) 승경지	랜드마크, 지역,
④	전관원	중랑천 북쪽 역원, 숙박소	결절점
⑤	전곶평	사적 제160호 살곶이다리, 제반교, 성종·중종 설치	통로, 랜드마크
⑥	전곶평	목점 한도관영 동문교장(東門驛), 경도삼영 동교수원(東郊水原), 전곶삼박(箭串三朴) 승경지	지역
⑦	동빙고	두모개 동빙고, 제사용, 사한단, 얼음저장소	지역
⑧	누정	제천정 압구정 낙천정 화양정 한강의 승경지	랜드마크, 지역
⑧-a	제천정	한강루, 왕실누정 사신접대, 연회 사회공간 등	랜드마크, 지역
⑧-b	압구정	성종, 한명회 주인 예겸의 기문 산언덕 승경지	랜드마크, 지역
⑧-c	화양정	전곶평에 있었음, 왕실누정, 세종, 고목의 느티나무	랜드마크, 지역
⑧-d	낙천정	태종이 머문, 세종, 왕실누정, 대산 승경지	랜드마크, 지역
⑨	동호독서당	중경2년(1517), 계획도, 독서당길 학문 승경지	지역,
⑩	저자도	모래톱, 하중도, 한중유 별서, 정의공주, 승경지	경계, 결절점
⑪	청계천	한양도성(漢陽城) 안왕산 남에서 흐름 내방강수	통로, 경계
⑫	중랑천	양주, 청계천과 합류 한강으로 흐름	통로, 경계

자료 : 신증동국여지승람(한국고전종합DB)

지도와 표에 서술한 문화공간의 경관적 분류는 선행 연구의 결과로서 동호 문화공간의 역사문화경관의 시각적 이미지 분석을 위해 지도와 표에 제시한 일련의 순서에 따라 제 특성을 조합하여 묶어서 조사하였고, 시각적 이미지 요소에 적용하기 위해 표로 만들었다.

2) 문화공간의 경관적 특성

(1) 경강 동호·두모포·입석포·동빙고

조선시대 두모포는 앞에 한강이 흐르고 남산, 압구정, 봉은사의 뒷산인 수리산, 청계산과 관악산이 가깝게 또는 멀리 사방으로 주위를 감싸듯 보이던 옥수동지역이며, “두모포가 도성 동남쪽 5리쯤에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고 기록하였다. 서울 한강의 동호대교는 조선시대 경강의 동호에서 유래하였다. 한양도성에서 흘러오던 청계천은 중랑천과 합류한 후 흐르다가 저자도 근처에서 한강과 만나 넓고 잔잔한 호수가 되었다. 동호는 교통, 경제, 군사, 생활용수기능 등으로 뽐냈으며 빼어난 자연산수경관이 더해져 역사문화경관의 정취가 있었다. 시문에서 시어를 도출하여 자연산수와 문화공간의 경관특성을 분석했다. 또한, 시문과 관련된 그림, 시각적 자료 등을 통하여, 동호 역사문화경관의 특성과 시각적 이미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동호의 풍경을 나무꾼 정초부(鄭樵夫, 1714-1789)는 시(詩)로 읊었고 단원 김홍도(金弘道 1745년-1806)는 그림으로 그렸다. 시어를 도출하면 아름다운 자연풍경의 혜택을 누리며 나무꾼 정초부가 목재 또는 땀감을 싣고 동호 포구에 내려 동대문으로 가던 모습과 팍팍한 삶의 애환을 물 흐르듯 보내는 삶의 철학으로 파악되었다.

“동호의 봄 물결 쪽빛보다 푸른데
흰 물새 두세 마리 물 가운데 떠서 놀다
노 젓는 소리에 놀라서 날아가고
노을 녀 산 그림자만 빈 연못에 가득 하네”

- 나무꾼 정초부의 동호 시(詩) -

그림 3. 단원 김홍도(金弘道 1745년-1806), 도감도, 99.3x51cm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동호의 시에 나오는 시어를 통해 조선시대 강호문화의 특성과 시각적 이미지를 인지할 수 있었으며, 자연경관을 격물치지의 의미로 해석하여 문학으로 나타났다. 시각적 이미지는 ‘랜드마크’, ‘통로’, ‘경계’와 ‘지역’으로서 인식되었고, 두모포의 시각적 이미지는 ‘결절점’, ‘경계’, ‘지역’이었다.

표 5. 동호(東湖)·입석포 시(詩)

문인	제목	경관
청천당(聽天堂) 심수경(沈守慶 1516-1599)	동호즉사시(東湖卽事詩)	동호, 좋은 경치, 저자섬, 솔잎, 길, 어촌, 살구꽃, 모래, 풀, 원앙새, 물결, 바람, 돛단배, 봄철, 압구정, 석양
옥봉(玉峰) 백광훈(白光勳 1537-1582)	동호즉사시	강, 경치, 누정, 노는 것, 옛날 사람들, 천금비용, 청풍명월, 낚싯배
석주(石洲) 권 필(權緯 1569-1612)	호정시(湖亭詩)	비, 길은 구름, 쪽두새벽, 밭, 경치기묘, 해, 뱃부리 서너 봉우리
나무꾼 정초부(鄭樵夫 1714-1789)	동호시(東湖詩) ¹⁰⁾	동호, 봄 물결, 쪽 빛, 푸른데, 흰 물새, 물, 노, 산 그림자, 노을 녀, 빈 연못
서거정(徐居正 1516-1599)	서거정의 시	시냇가, 괴이한 돌, 사람처럼 서있는데, 가을, 푸르게, 낚싯대, 은빛 실, 금붕어, 모래관, 술병, 창랑가, 빛나는 이름, 무슨소용

자료 : 김영상, 2001 필자 재구성

입석포는 두모포 동쪽지역 바위가 깎아지른 듯 벼랑을 이룬 곳이며, 입석조어(立石釣魚)로서 기묘한 바위형상과 낚시터로 유명하였다. 입석포는 선돌개로 불렸으며, 동쪽의 전곶평, 저자도와 압구정이 바라보이는 승경의 낚시터였다(김영상, 2001). 입석포의 시각적 이미지는 ‘랜드마크’, ‘경계’로 분석되었다.

동빙고는 국가의 종묘나 사직 등 제사 때 쓰는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두모포에 있었다. 동빙고에 옥호루가 있어 경치가 뛰어났다고 전한다. 동빙고는 12월에 얼음을 뜨기 시작하여 1만244장의 얼음짜를 저장하였다. 두모포 동빙고 밖 북쪽에 있는 사한단(司寒壇)에서는 음력12월 저장할 때와 춘분 날 빙고문을 열 때 수우신(雨水神)에게 제사를 지냈다(김영상, 2001). 두모포의 시각적 이미지는 ‘지역’으로 인지되었다.

(2) 전관원·전곶교·전곶평

전관원(箭串院)은 전곶교 서북쪽에 있었다. 한양 도성 주변 역원인 일종의 여관인데 도성 문이 닫히고 열리는 인정과 파루를 감안해서 쉬거나 묵어가던 곳이었고, 대략 도성 3-4리 정도에 위치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한성부). 전관원의 시각적 이미지는 ‘지역’이자, 길을 나서는 장소의 특성상 ‘결절점’에 속하였다.

전곶교(제반교濟盤橋, 살곶이다리)는 전관(箭串)에 있는데, 다리가 3백여 보 이상에 걸쳐있다. 중종(中宗)이 어필로 글씨를 써서 정하였다(동국여지비고 제2편 교량조). 도성에서 동쪽 나루로 가는 중요 길목이었고 낚시를 할 수 있는 도요연(都腰淵) 연못이 있었다. 전곶교의 시각적 이미지는 ‘통로’, ‘랜드마크’로 분석되었다.

전곶(箭串)은 전관(箭串, 살곶이) 곧 국도의 동교(東郊)인데, 평탄하고 넓으며 수초(水草)가 매우 풍요하였다. 둘러서 우리를 만들고 국마(國馬)를 기르는데 넓이가 34리나 되었다. 처음에는 목책을 만들었다가 해마다 개수(改修)하니, 백성은 피폐하고, 말도 도둑맞아 도망갔다. 명종조(明宗朝)에 이르러서 돌을 쌓아 제방을 만들고 냇물이 흐르는 곳에는 철삭(鐵索)으로 열고 닫게 하니 폐단이 제거되었다(동국여지비고 제2편 목장조).

표 6. 전곶평 시(詩)

문인	제목	경관
삼봉(三峯) 정도전 (鄭道傳 1342-1398)	동문교장	정, 북소리, 깃발, 일만 마리 뗏말
양촌(陽村) 권근 (權近, 1352년-1409년)	동문교장	다섯 장교, 세 군영, 호령, 동문, 정, 북소리, 일만기병, 무기, 금빛갑옷, 바람, 깃발, 포로 개가, 웅장한 이름
월산대군 (月山大君 1454-1488)	전교심방	봄철, 교외, 풀비단, 봄바람, 술, 놀이꾼, 말, 푸른 풀, 저물녘, 취중, 푸른 옷, 소년들, 피리, 통소, 버들가지, 한들한들, 녹음, 내일, 그네
삼탄(三灘) 이승소 (李承召 1422-1484)	전교심방	꽃다운 저 풀들, 비단, 녹음, 아낙네들, 구경, 장막, 청춘, 수탉, 술, 좋은 계절, 즐기,

자료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제영 필자 재구성

그림 4. 진현마정색도, 1663년, 30.0x44.6cm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전곶평은 조선시대 목마장이었지만 경도십영 중 동교수렵(東郊狩獵)으로 알려진 사냥터였고, 전교심방(箭郊尋訪)으로서 봄이면 상춘객들의 놀이터였다. 표의 시문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어에서 당시의 문화경관을 느낄 수 있었다. 동교는 지역이 넓어 열무장으로 사용되었는데, 한도팔영의 동문교장(東門郊場)인 넓디넓은 벌에서 군대를 사열하였다.

그림의 목장지도를 보면 동쪽 아차산이 목장 위쪽에 있고, 좌측에는 중랑천, 우측에는 한강과 광나루 지역, 하단에는 한강이 흐른다. 목장에는 위용과 경관을 보이는 왕실의 화양정이 그려져 있어 정자가 주요 경관텍스트였다. 목장 둘레엔 울타리가 쳐져있으며 독섬과 강 연안에 유림(柳林)인 버드나무가 열

식되었다. 버드나무는 강을 오르내리는 배에서 뿐 아니라 전곶장을 바라보는 곳에서 강 연안을 따라 볼 수 있었다. 독섬포구와 함께 목초지는 경마장과 골프장으로 이용되었고 주변에 마을이 차츰 들어섰지만 한강개발사업 전까지 채소밭과 독섬유원지로 이름이 났었다(김영상, 2001). 우리나라 최초의 골프장이 있던 곳에 어린이대공원이 세워졌고, 강을 따라 도로와 교량이 세워졌으며, 이 지역은 상전벽해 되어 생활의 터전으로 바뀌었다. 일부는 서울 숲이 조성되고, 인도교와 보행로를 만들어 용봉과 남산으로 연결된다. 이 곳은 주된 시각적 이미지가 '지역'으로서 강했으며 유림을 따라 '경제'의 시각적 이미지로 인식되었다.

(3) 누정과 독서당

신증동국여지승람 '풍속'조에는 중국의 "합허자"를 인용하여 우리민족은 옛 부터 "유술(儒術)에 돈독하고, 인의(仁義)의 나라이며, 시서예악(詩書藝樂)의 고장"이라고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학문과 심신수련을 위해 승경지에 별장·별서가 세워졌다. 특히 누정과 독서당은 도성과 가깝고 강물이 보이는 높은 언덕에 산수자연의 풍광이 좋은 곳에 세워져 문화경관 향유, 심신수양, 학문을 정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목덕산의 꽃구경, 제천정의 달 구경은 경도십영이었고, 남쪽 강에 가득한 물, 바위 아래의 그윽한 꽃, 고개 위의 긴 소나무, 봄철 3월의 푸른 풀 밝기, 산봉우리에 올라가 등불 구경하기, 시내 따라가며 갓끈 빨기는 남산 8영 그리고 압구정의 배 띄우기와 청계의 단풍 놀이는 국도(國都) 8영이라 할 만큼 도성과 주변은 문화적인 승경을 이루었다. 동호주변에는 황화정, 유하정, 제천정, 칠덕정, 낙천정, 화양정, 압구정과 숙몽정 등 18개의 정자가 있었고, 현대에 낙천정은 복원되었다.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 1537-1582)은 동호 정자의 경관을 시로 남겼다. 누정의 시각적 이미지는 '랜드마크'와 '지역'으로 인지되었다.

好是臨江處樓 江 따라 경치 좋은데 가는 곳마다 누정이네
往來無復禁吾遊 그 누가 오라 가라 내 노는 것 막을 거냐
當時不惜千金費 옛날 많은 사람들 천금비용 아끼지 않았어도
風月年年屬釣舟 청풍명월이 해마다 낚싯배에 가득 하다오
(옥봉집, 한국고전종합DB, 서울시사편찬위원회)

① 제천정

신증동국여지승람 누정조에 "제천정은 한강북쪽에 있다"고 전하였다. 관련기문을 보면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듯하며 초기에는 한강정 또는 한강루로 부르다 세조 2년(1456)경부터 제천정으로 바뀌었다(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1). 왕실의 누정 제천정에서는 사신들의 연회, 월산대군을 비롯한 많은 문인묵객

들이 찾아 한강의 풍월을 작시하던 풍류문화의 장소였고, 제천 완월(濟川翫月)로 유명하여 강호 누정에서 달밤을 즐겼던 시문과 이야기가 전한다.

표 7. 제천정 시(詩)

문인	제목	경관
풍월정 월산대군 (月山大君 1454-1488)	제천완월	은빛강물, 바람, 흰 물결, 달 빛, 못 밑, 강 머리, 구름, 황금 떡, 높은 다락, 한잔 술, 맑은 빛, 백발, 깊은 밤,
사숙재 강희맹 (姜希孟 1424-1483)	제천완월	서늘한 밤, 빈 강, 사방 고요, 밭, 흰 그림자, 자주빛 안개, 아름다운 하늘, 서늘한 달, 금떡, 학, 강루, 태평소
사가정 서거정 (徐居正 1420-1488)	한강루망 년회석상	제천정, 열두 동년, 말, 관악산, 높은 봉, 한강 물, 파랑네, 긴 바람, 비, 지는 해, 봄, 술잔, 술자리,

자료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1, 필자 재구성

중국 사신인 예겸(倪謙 1415-1479)은 시에서, “백 척 높은 누대 한강 가에 섰는데, 시간을 내어 와 보니 정신이 상쾌해지네. 산 그림자 물 속에 잠기니...(중략)날이 따스하니 일엽편주(一葉片舟) 가볍게 뜨고, 바람이 잔잔하니 봄 물결 가늘게 줄 짓네. 바다 어귀 저 물결 은하수에 닿은 듯, 신선 뗏목 타고서 하늘 나루터 찾아갈거나. 도성 남쪽에 경치 제일 좋다더니, 한강 저 위에 높은 누대 서 있네. 멀리 나온 여러 재상들 좋은 잔치 마련하였는데, 가까이 내려다보니 한가한 어부 배 저어가네”(신증도국여지승람 누정조)라고 썼다. 제천정은 한강에서의 사신접대를 위한 왕실 연회의 출발점이었으며, 학자이면서 뛰어난 문장가인 예겸 등 중국 사신들과 시를 지으며 외교를 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의 정치·외교·문화교류의 장소였다. 제천정의 시각적 이미지는 ‘랜드마크’이자 ‘지역’과 ‘경계’로 인식되었다.

② 압구정

압구정은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의 정자였다. 세조 때 경강 서호지역인 여의도에 세워졌다가 성종 때 현재의 압구정동 지역인 동호 남쪽 산언덕에 조성되었다. 한명회의 지명도와 압구정 장소의 특성상 정자 관련 자료는 성종의 어제시에 차운한 시들과 시문 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졌고 회화식 지도에 표기되었다. 압구정의 배 띄우기는 국도십영(國都十詠)으로서 배에서 바라보고 보이는 풍경이 빼어났다. 압구정과 함께 주변에 별장과 별서가 들어서고 강변에는 압구정나루가 생겼다.

당시 광주목이었던 압구정은 두모포, 독도(蠓島 독섬)의 몽뢰정(夢賚亭), 한강의 서빙고(西水庫)와 함께 세금을 거두는 관내(字內)였다(동국여지비고 제2권). 압구정은 예겸이 지어 준 압구(狎鷗)라는 이름과 함께 조선 뿐 아니라 중국에도 알려졌고 문인묵객들에게 들르고 싶은 명소였다. 철종 때 부마였던 박영효에게 하사되었고 한강개발사업 전까지 압구정터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신사로 왔던 기순(祁順)은 시문을 통하여 압구정의 명성을 들었다.

題狎鷗亭 압구정에 쓰다

瀟灑衡茅漢水東 맑고 깨끗한 밋집이 한강 동쪽에 있는데
主人情與白鷗同 주인의 심정은 흰 갈매기와 같다네
尋盟肯負沙邊侶 거듭 다짐하나니 어찌 모랫가 짝을 저버릴 수 있으랴
易慮深慚海上翁 생각을 바꾼다면 바닷가 노인에게 매우 부끄러우리
野渡浮沈千頃雪 들 나루터엔 천 이랑의 눈발이 뿔다 잠기건만
釣船來往一絲風 낚싯배는 한 줄기 바람을 타고 오가네
相門德業光前後 재상 가문의 덕업이 앞뒤로 빛나니
不但名亭比魏公 단지 이름난 정자만 위국공과 닮은 것이 아니라네. (皇華集 권9, 이국진, 2012)

시문이란 경관이나 공간에서 바라보이는 승경을 통해 작가의 심경과 사상을 빚대어 표현한 것. 즉, 격물치지의 경지가 일반적이다(소현수, 2011). 신증도국여지승람의 압구정시를 보면, 날아드는 갈매기와 백사장, 배, 낚시, 한가함, 그윽하고 외로운 정자, 바람, 구름, 푸른 물, 자유, 유학자, 나루터, 버드나무 등 강호의 풍광이 표현되었다. 시를 요약하면 서호의 여의도 정자는 초정(草亭)이었고, 압구정의 의미인 기심(機心)과 무심(無心)을 강조하였다. 한명회에 대한 찬사와 비방은 말년에 동호에 마련한 압구정 시문에서 빚대어 표현되었는데 김시습(金時習), 임제(林悌)와 최경지(崔慶之) 등은 한명회의 압구(狎鷗)를 인정하지 않았다(이종묵 2006).

한명회 사후 정자에는 문인묵객들이 시를 짓거나, 한 때는 독서당으로 사용했다. 16세기 조위(曹偉)가 홍문관과 동호에서 시회를 가지고 압구정에 올랐고, 독서당으로 이용되는 기간은 홍문관교리였던 이황(李滉)이 1543년경 임형수(林亨秀), 정유길(鄭惟吉) 등과 압구정 뒷산에 올라 시회를 가졌다(이종묵, 2001). 동호의 압구정은 한명회가 정자를 짓고 난 후 당대 문인들의 사상과 문학과 풍류 등 문화가 있는 장소가 되었고 압구정동으로 자리매김 하기까지 역사적, 문화적인 경관을 부여하면서 두터운 커를 형성해온 명승지였다.

회화로는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의 거장으로 알려진 겸재(謙齋) 정선(鄭敼)(1676-1759)이 동호의 압구정이 세워진 후 근 270년인 1741년에 명승명소도를 그렸다. 초원(蕉園) 김석신(金碩臣, 1758-1822)의 ‘압구정상(鴨鷗淸賞)’은 갈매기와 벗하며 맑은 경치를 즐긴다는 뜻이며, 정자 안에 넷, 밖에 셋 그리고 세 명이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있는 것을 표현하였다. 푸른 숲의 높은 언덕 위에는 정자가 솟아올라 있고 동호의 풍광이 잘 나타나 있었다.

표 8. 압구정 시(詩)

문인	경관
태복시승(太僕寺丞) 김식(金湜)	“초정(草亭), 한강, 백구, 짝, 한가로이, 남아감.
급사중(給事中) 진가유(陳嘉猷)	정자, 구름, 갈매기, 푸른 물가, 붉은 난간, 아찔저녁.
급사중 장녕(張寧)	물과 구름 초정(草亭), 손, 흰 갈매기, 심사(心事), 한가.
호부낭중(戶部郎中) 기순(祁順)	산뜻한 초가집, 한강 동쪽, 백구, 모래가, 낙숫배, 실바람.
신숙주(申叔舟) ¹¹⁾	산수. 맑은 마음, 임천(林泉), 높은 정자, 강가, 흰 갈매기, 난지(蘭芝), 한강 연파(煙派), 중국의 유로(儒老)들.
이문형(李文炯)	정자, 한강 물가, 정남(城南) 지척, 달밤, 연기, 버드나무, 비, 물고기, 나루터, 난간 앞 물결, 흰 갈매기.
최경지(崔敬止)	임금, 종애, 정자, 돌 틈, 기슭, 벼슬 바다, 갈매기 친압.

자료 : 한국고전번역원 정선용(역), 2008 필자 재구성

그림 5. 정선, 압구정, 비단채색, 그림 6. 김석신, 압구정상, 29.5x23.5cm 30.9x23.5cm

자료 :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자료 : 선문대학교 박물관

정자는 높은 산언덕에 한강과 주변 산을 대경으로 건너편을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강의 물목에 위치하였다.

배가 강 상류에서 동호로 흘러가며, 양안에 자연 모래톱이 있고 산언덕에는 수림이 우거져있으며 별서들이 위치하였다. 목멱산 소나무림은 멀리서 푸른 숲으로 조망되고 주위 경관이 승경이었다. 압구정의 시각적 이미지는 ‘랜드마크’, ‘경계’,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림 7. 정선, 압구정, 비단채색, 31.0x20.0cm, 1741년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③ 화양정 · 낙천정 · 동호 독서당

화양정(華陽亭)은 “낙천정 북쪽 언덕에 있다. 본래 태복시(太僕寺)의 목장이었는데, 세종 14년에 그곳에 정자를 지었다. 유사눌(柳思訥)의 기문이 있다”(동국여지비고)고 하였다. 전술한 진헌마정색도에는 화양정을 그렸다. 1910년 경에 낙뢰로 소실되었다고 하며 약 700년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 고목이 옛터 주변에 남아있다. 화양정은 ‘귀마우화산지양(歸馬于華山之陽: 말을 화산 남쪽으로 돌려보낸다)’, 즉, 화산을 삼각산이라 할 때 삼각산 남쪽(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2)은 전곳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화양정이라 지었다. 화양정은 왕실 누정이자 전곳평에 속한 정자였으므로 시각적 이미지는 ‘지역’, 왕이 이용하던 곳이므로 ‘랜드마크’, ‘경계’로 인지되었다.

국왕의 동고행차 때 찾는 전곳평 동쪽 해발 428m 낮은 구릉 대산(臺山)에 낙천정이 있었다. 낙천정은 한강과 잠실을 바라보는 곳에 위치하여 풍광이 좋았다고 한다. 주변은 과일과 채전이 있어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였다. 또한 산 아래에는 세종 원년에 낙성된 이궁이 있었다(홍금수, 2006). 낙천정(樂天亭)은 “전관(箭串)에 있다. 태종은 1418년 선위(禪位)한 후에 이궁(離宮)을 동교대산(東郊臺山)에 창건하여, 정자를 그 위에 짓고 박은(朴崐)에게 명하여 정자 이름을 짓게 하였다. 변계량(卞季良)의 기문이 있다(동국여지비고).” 박은은 주역의 “낙천지명고불우(樂天知命故不憂: 천명을 알고 즐기니 근심하지 않는다)”에서 이름을 지었고, 변계량이 기문을 썼다. 세종은 태종과 원경왕후에게 문안을 드리거나 사냥, 낚시, 주연 등을 위해 낙천정을 자주 이용하였고 태종을 위해 전곳교를 돌로 축조하였다. 1960년대 도시개발과 함께 낙천정 터는 도로와 주택지로 변하였고, 1991년 낙천정을 복원하여 서울시기념물 제12호로 지정하였으나 정밀조사결과 위치와 조성상 문제가 있어 해제되었다. 옛 정자터에 표석이 세워졌다. 낙천정의 시각적 이미지는 ‘랜드마크’와 ‘지역’, ‘경계’로 인지되었다.

독서당(讀書堂)은 “두모포(豆毛浦) 남쪽 언덕 월송암(月松庵) 서쪽 산기슭을 선택하여 창건하였으며 호당(湖堂)이라고 이름”(동국여지비고) 하였다. 중종 10년(1513) 독서당을 지어 2년 후 완성하였으나 불편한 점이 많아 윤현(尹鉉, 1514-1578)이 동료들과 의논하여 명종 6년(1551) 신당을 지었다. 윤현은 1538년-1554년까지 독서당에 있었으며 윤현의 호당기에는 신당에 대한 기록이 잘 나타나있다. 또한 시와 그림의 독서당계회도에는 독서당 모임의 풍류가 잘 나타나있다. 임진왜란 전까지 79년간 유지되었다 폐지되었는데 광해군 무신년에 고쳐 한강별영(漢江別營)을 독서소로 삼았다. 약수동에서 옥수동 넘어 오는 길은 선비들이 넘나들던 고개로서 독서당길이라 불렀다. 사가독서제는 폐지와 실시를 거치다 효종 9년(1658)에 건물 복원이 되었으나 숙종 때 이후 사라지게 되었고, 중종 때는 규장각을 중심으로 학술활동을 하였다(이종묵, 2006). 독서당의 시

각적 이미지는 '지역'으로 인지되었다.

(4) 저자도 · 청계천 · 중랑천

압구정 그림에서 저자도는 중랑천, 전곶평, 한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며, 두모포 또는 뚝섬으로 가는 '결절점'이었다. 일찍부터 승경을 이뤄 고려 말 한중유가 말년을 보냈고, 세종 때 정의공주에게 하사했으며 모래톱, 언덕이 있고, 강을 오르고 내리는 배들과 강물이 조망 승경을 이뤄 정자가 많이 들어섰고 문인묵객들의 풍류지였다. 옛 지도를 보면 저자도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 이후 봉우리부분이 사라졌다. 1953년에는 섬 가운데 물길이 생기고 1970년대 한강개발사업 때 압구정동 매립공사(윤진영, 2009)와 함께 사라져갔으나 최근 한강의 수계복원 차원에서 관심이 일고 있다. 저자도의 시각적 이미지는 '결절점', '지역', '랜드마크'로 인식되었다.

청계천은 개천으로 불렸고 신증동국여지승람 한성부 산천에 "개천(開川)은 백악산(白岳山) · 인왕산(仁王山) · 목멱산(木覓山) 여러 골짜기의 물이 합하여 동쪽으로 흘러, 도성 가운데를 지나서 세 수구(水口)로 나가 중랑포(中梁浦)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내명당수로서 의미가 크며 개천하류는 홍인문 밖 영도교를 흘러와 중랑천과 합류하여 한강과 만나며, 홍인문 밖에 시전이 있었고 동교로 나가거나 동호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청계천의 시각적 이미지는 '통로'로 인식되지만, 행사가 있으면 '랜드마크', 위치를 나타낼 때는 '경계'로 인식되었다.

중랑천은 신증동국여지승람 한성부 산천에서 "중랑포(中梁浦)는 일명 속계(涑溪)라고도 하는데, 도성 동쪽 13리 지점에 있으며, 양주(楊州) 독두천(獨豆川)의 하류이다."라고 하였다. 중랑천의 시각적 이미지는 '통로', '경계'로 인식되었다.

(5) 동호문화공간의 경관적 특성

한양도성에서 각 지방으로 가는 길은 제9로와 행행진로가 있었다. 동호로 통행되는 길은 "평해군(平海郡)에 가는 것이 제3로가 된다. 홍인문과 중랑포(中梁浦)를 경유한다. 행행진로(幸行津路)와 현릉(獻陵) · 영릉(英陵) 등은 광진(廣津)을 경유한다."고 신증동국여지승람 한성부에 기록되어 있다. 도성 주변의 산을 경유하거나 개천 또는 물길을 이용하지 않고 주요도로로 갈 때는 전곶교를 건너 광진 · 송파나루 방향으로 통행하거나 또는 두모포 또는 무수막나루를 거쳐 강을 건넜다. 강물은 강 연안의 하중도, 모래톱이나 산언덕을 경계 지점으로 동에서 서로 흘러가고, 수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호의 나루터나 포구에 다다르면 자연스럽게 자연산수와 동교의 문화경관을 탐승하는 삶을 살아갔다. 주변 목멱산과 아차산 등 산 봉우리에는 평시에도 봉화인 화가 걸렸고, 계절, 시간따라 변하는 풍경과 강호의 왕실 행사 외에도 다양한 문화활동에 의해 산 아래와 강 위에는 오랜 시간 역사문화경관이 쌓이면서 장소적 특성

이 내재되어 전해졌다. 현재 자연하천의 시각적 이미지에 역사 문화경관을 더한다면 한강의 시각적 이미지는 강하게 인지될 수 있다. 표 9에서 기 서술한 시문과 그림의 주요 경관을 요약해보니 한강과 누정 중심으로 나타났다.

표 9. 시문과 그림의 주요 경관

구분	시 문				그 립		
	체천정	압구정	전곶평	입석포	진현마정색도	압구정도	도강도
시기	15c	15c 이후	15c	16-18c	17c (1663년)	18c (1741년)	18c (1780이후)
경관	은빛강물, 한강, 달빛, 정자, 바람.	정자, 한강, 버드나무, 갈매기, 바람.	정, 북소리, 기병, 봄, 풀, 버들가지, 녹음.	동호, 강, 물새, 압구정, 뉘릿대.	말, 버드나무, 전곶교, 한강.	정자, 한강, 저자섬, 산언덕, 모래톱.	동호, 배, 섬, 물새

2. 동호 문화공간의 경관적 이미지

1) 경관의 시각적 이미지

동호 문화공간의 경관적 분류와 특성을 고찰해 본 결과 역사 문화경관은 자연산수를 배경으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주변에서 자연과 순응하며 다양하게 살아가던 삶의 터전으로서의 역사 문화 장소였다. 한강은 한양도성과 가까운 최고의 명승지였으며 주변 산하를 따라 자리 잡은 건축물들은 랜드마크 또는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 새로운 왕도를 세워 나가는데 있어서 한강은 국가 기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수자원이자 수경관이며, 외교적으로도 이름난 명승·명소였다.

전통문화와 물리적인 공간이 사라져간 장소를 시각적 이미지로 분석하기 위해 문헌, 그림, 지도 자료를 조사한 후 제 특성을 고찰하고 린치의 시각적 이미지 요소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동호 문화공간을 분류하고 특성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문화공간의 특성에 따라 린치의 시각적 이미지 요소를 적용하였다. 동호 문화공간에 적용된 시각적 이미지 각 요소는 경강 동호문화 공간의 경관이미지 분석표에서 조명되었다.

2) 경관적 이미지의 특성

(1) 경강 동호·두모포·입석포·동빙고

경강 동호는 물길이라는 특성상 주요 '통로'에 해당하였다. 강의 흐름을 따라 배를 타고 이동하거나 배가 운행하는 것을 보면서 경관은 연속성을 갖고 움직이며 전개되어 흐르다 다른 환경 요소와 서로 시각적 관련을 맺으며 연결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포구에서 배를 타고 강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 강은 '지역' 또는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산언덕이나 육지 또는 섬 등에서 보면 강은 '경계' 또는 '가장자리'로 분류되었으며, 경강의 동호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했기에 시각적 이미지 측면에서

볼 때 '명료성', '정체성', '구조', '의미' 등 제 특성을 부여하는 한양도성의 '랜드마크'로 분류하였다.

두모포는 '경계'이자 '지역'이고 '결절점'에 해당하였으며 포구의 특성상 '정체성'과 '구조'와 '의미'를 함유하고 있었다.

입석포는 기묘한 선돌의 경관을 부여하였고 낚시하기 좋은 승경지며 명소였기에 문화경관의 '랜드마크', '지역'의 요소로 인식되었고 육지 또는 강에서 볼 때 '경계' 요소에 해당하였다.

동빙고는 얼음 창고라는 특성상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2) 전관원·전곶교·전곶평

전관원은 역원이라는 특성상 출발 또는 이동한다는 점 또는 통행을 멈추고 쉬던가 멈춘다는 관점에서 볼 때 '결절점'으로 판단되었다. 전곶교는 건너기 위한 '통로'이었으며, 돌로 세워진 제일 긴 다리였다는 특성과 주위에 도요연이라는 낚시터가 있었다는 점에서 전곶평 주변의 '랜드마크'로 구분하였다.

전곶평은 이차원의 푸른 들판에 초목이 무성하고 말들이 있는 목장이라는 특성상 '지역', '랜드마크'에 해당하지만, 상당히 넓은 지역이므로 전곶평의 점경물에 따라 이미지요소가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강 연안을 따라 조성된 유림은 '랜드마크', '경계', 봄에 상춘객들이 봄놀이를 하러 올 때는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럼에도 전곶평은 시각적인 '명료성', 목장이라는 환경의 '정체성', 들판이라는 '구조'와 '의미'가 포함된 시각적 이미지가 잘 연상되는 장소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 때 경마장, 골프장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는 상전벽해되었으며, 서울 숲과 어린이 대공원은 성격은 달라졌지만 녹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3) 누정과 독서당

강가 높은 언덕 조망점에 세워진 누정과 독서당은 강력한 '랜드마크'로 구분되며, 바라보고 보이는 풍경이 뚜렷하게 인지되고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경관의 명료성이 확실하였다. 특성상 '정체성'과 '구조' 그리고 '의미'가 연상되었으며, 누정 원림 지역은 들어가고 나온다는 점에서 '지역' 또는 영역의 요소가 있었고, 왕실이나 사대부의 장소라는 점에서 장소적 특성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제천정과 압구정은 입지와 소유주와 지명도에 있어서 상당한 규모의 누정이므로 시각적 이미지 요소에 있어서 '랜드마크'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4) 저자도·청계천·중랑천

동호의 저자도는 퇴적층으로 형성된 하중도로서 모래톱과 갈대아름답고 풍광이 좋은 섬, '지역'에 해당하였고, 잠실을 돌아 독섬의 유림인 버드나무 수림대를 지나 강 안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동호의 '랜드마크'이자 '결절점'으로 인지되었다.

청계천과 중랑천은 지역을 나누는 '경계'이자 물길을 따라

형성된 '통로'로 인식되었으며, 청계천은 지명도에서 '랜드마크'의 요소로 구분되었다.

3) 경관특성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의 분석과 장소성

(1) 동호 문화경관의 특성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분석

경강 동호 문화공간의 경관적 특성을 매개로 하여 현대적인 관점에서 경관의 시각적 이미지 요소를 분석할 때 관념적인 분석과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서 보이거나 읽혀지는 시각적인 이미지나 연상은 이미지 요소를 대입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성적이지만 표를 통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10. 동호 문화공간의 경관 이미지 분석

구분	통로	경계	지역	결절점	지표물
경강 동호	=	●	■		★
두모포		●	□	◆	
입석포			■		★
동빙고	—		□		
전관원			□	◆	
전곶교	—	●			♡
전곶평		○	■		★
제천정		○	■		★
압구정		○	■		★
화양정		●	■		★
낙천정		●	■		★
동호독서당			□		
저자도			■	◆	★
청계천	—	○			♡
중랑천	—	○			

통로: 상 =, 중 —, 하 —, 경계: 상 ●, 중 ○, 하 ○, 지역: 상 ■, 중 ■, 하 □, 결절점: 상 ◆, 중 ◆, 하 ◇, 랜드마크: 상 ★, 중 ★, 하 ♡

표 8은 동호 문화공간의 경관이미지 분석을 위해 전술한 표 2의 시각적 이미지요소를 상·중·하로 구분한 것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경강 동호 문화공간의 경관적 특성을 시각적 이미지 요소에 접목하여 정성적 분석을 한 결과 지명도가 높은 경관일수록 '랜드마크'적 요소가 '상'에 해당하였고, '지역' 또는 영역요소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지는 경강 동호지역의 주요 문화적인 공간이었기에 각 공간마다 정체성, 특성과 관련한 경관의 구조와 의미가 뚜렷하여 시각적 이미지 연상과 구축이 용이하였다. 당시에 볼 때 문화경관의 시각적 인지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경강 동호공간의 대상지별 문화경관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시각적 이미지요소를 대입하여 분석했을 때 경관분류에 따른 특성과 시각적 관점의 이미지가 비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경강 동호가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전술한 경관특성의

신문 분석 항목에 나타난 한강이 주요 경관텍스트인 것과 일치하였다. 이외에도 한강누정은 문화공간의 의미와 동호의 '랜드마크' 이미지를 구성하는 인지요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동호 문화공간의 특성에 따른 장소적 특성

조선시대 경강은 자연하천의 경관을 간직한 채 주변 산악경관과 조화로운 승경을 이루었다. 도성과 가깝고 서해 바다와 인접하여 조운선, 낚싯배, 목재와 뿔감을 실은 배 뿐 아니라 뱃놀이 하는 유람선, 강을 가로지르는 배 등 선박이 부지런히 드나들어 물산이 풍부하였다. 서호의 강 하류를 향해 완만하게 흐르는 동호는 동시대의 풍속이나 사회상과 어울려 시각적 이미지가 뚜렷한 문화경관의 장소성을 보이며 역사문화경관의 풍류적인 삶을 제공하였다. 동호의 자연산수 경관은 오랜 세월 동안 승경을 이루어왔던 그 곳에 조선의 새로운 문화경관이 접목되어 동시대의 문화를 켜켜이 담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현재 대상지에는 동호대교를 비롯하여 교량들과 도로가 씨줄 날줄처럼 엮여서 통과하고 강 양안에는 대단위 택지가 조성되어 '지역' 또는 '영역'을 형성하며 강과 '경계'를 짓고 있었다. 단일군의 '랜드마크' 요소는 많아져 진정한 '랜드마크' 인지가 어려운 대신 대단위 공동주택군이 형성되어 복합 단위의 '랜드마크' 단지가 시각적 인지도를 보였다. 그러나 한강변을 따라 흐르는 대단위 공동주택과 교량은 규모와 반대로 시각적 인지도가 약하였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볼 때 대상지는 명료성이 약해졌고 구조와 의미가 상실되어 시각적인 연상이나 이미지화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대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한강의 시각적 이미지는 자연하천의 '통로'로 인식되었다. 강의 구간마다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했던 모래톱, 자연제방, 또는 섬은 하천의 가장자리인 '경계'의 이미지를 부여했으나 인위적인 시설 조성으로 자연스런 형태의 패턴·구조·의미는 파괴되어 구간별 명료성은 소실되었다. 역사문화경관의 장소가 파괴되면서 '지역' 이미지가 낮아지고 '정체성'도 희미해졌다. 현대의 시각적 이미지들끼리 중첩되면서 명료성·정체성이 약해지고 공간은 제 특성을 상실하여 복잡한 이미지를 주었다. 그러므로 현대적인 경관이 중첩되어 시각적 이미지와 정체성이 사라진 곳의 인지도를 높이려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그 장소가 지녔던 역사문화경관을 선정·복원하여 '랜드마크' 요소의 시각적 요소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역사문화경관은 물리적일 뿐 아니라 심리적인 경관을 포함한다. 경강동호의 문화경관에는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경관이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재한 경관은 지면으로 끌어올려 장소성을 부여하고, 사라진 물리적인 경관은 공간에 대한 자연의 복원력을 매개로 기다림의 시간과 인위적인 복원 노력으로 역사문화경관 복원의 관점에서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IV. 결론

조선시대 동호문화 경관은 동호를 시각적 이미지 요소에 적용했을 때 '통로'로서 높은 이미지를 보였고, 청계천과 중랑천의 이미지는 중간단계의 인지도를 나타냈다. '경계'는 하천의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이미지 요소로 동호가 높은 명료성을 보였고, 전곶평과 연결되는 전곶교가 중간단계의 시각적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시각적 이미지 요소로 파악했을 때 기 선정된 문화공간은 '지역'에서 인지도를 끌고루 나타냈고 방향 전환점을 의미하는 '결절점'은 포구인 두모포가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린치의 시각적 이미지 요소에서 지표물이라고 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문화공간에 적용했을 때 경강 동호와 누정인 압구정, 제천정이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입석포, 전곶평, 화양정, 낙천정 등이 중간 단계의 인지도를 보임으로써 역사문화경관의 지명도와 명성은 시각적 이미지 요소에 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화공간의 패턴, 구조, 의미가 명료하고 정체성이 확실할수록 '랜드마크'와 '지역' 요소가 높게 인식되었다.

조선시대 경강 동호지역은 자연승경지에 형성된 삶과 문화향유의 공간이었다. 오랜 세월동안 형성된 자연산수경관과 역사문화경관이 우수하여 명승명소가 많았고, 무위자연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러므로 문화공간의 경관특성을 린치의 시각적 이미지요소에 대입했을 때 공간의 지명도가 높을수록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역사문화경관은 물리적일 뿐 아니라 심리적인 경관을 포함하며 문화경관에는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경관이 내재하고 있었다.

현대 한강은 문화성과 역사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역사문화경관 복원 시 시각적 인지도를 고려하여 이미지 요소를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하고 사례연구 함으로써 역사문화경관 장소의 복원과 함께 한강의 역사성과 문화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 1) "경도(京都)"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권 한성부(漢城府) 건치연혁조) : "경도(京都)는 뒤에 화산(華山)을 지고"(정인지(鄭麟趾)서문, 산천조). 한국고전종합DB.

주 2) "경강(京江)"(태종18년(1418) 1월12일 기사, 문종1년(1451) 8월4일 기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2001). p. 109.

주 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2012). p. 232

주 4) 한양 도성의 성저십리 지역인 한강과 한강유역은 수(水) 경관과 동시대의 전통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주 5) 경관을 보고 느끼고 읽어내어 인지할 수 있는 대상.

주 6)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은 물처럼 가만히 있는 듯 보이나 흘러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순리대로 균형 있게 자연에 맡기는 것이다. 도덕경 제2장의 "천하계지미지위미 사오이(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천하가 다 아름답다고 알고 있는 것이 꾸며진 아름다움이면 이것은 추함)이며, 천하게지선

지위선 사불선이(天下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천하가 다 선하다고 알고 있는 것이 꾸며진 선이라면 이는 선 아니다.” 오정운(1995). 고유 신선사상(神仙思想)에 관하여. 한국고대사문제연구소. 다물통권14호(1995년 乙亥 6월호). <http://blog.daum.net>

- 주 7) 연려실기술별집제5권 사대전고 빈사(賃使). 한국고전종합DB.
 주 8) “既而放舟, 遊所謂楊花渡者. 舟狀如亭, 上覆重茅, 下布紋席, 棟梁椳桷, 丹青炳耀, 四面皆敞, 懸以素幕. 予謂諸君曰: ‘江南畫船如屋, 乃今屋作船 耶?’ 行數里, 西風漸急, 舟不能進, 予攀帷視之則見南山在前, 北嶽在後, 龍山彌雲, 映帶左右, 蠶頭諸峰, 起伏萬狀, 宛然如畫. 予曰: ‘即此足矣, 奚必楊花渡哉’ 乃弭楫中流, 令人吹洞簫, 復扣 舷而歌之.” 華察, 遊漢江記. 皇華集 卷27. 이국진(2012). 명나라 사신들의 한강 유람과 문학적 형상화. 재인용. 신태영(2003). 명나라 사신은 조선을 어떻게 보았는가?. 일조각.
 주 9) 蘭亭已矣, 梓澤丘墟. 왕발(王勃, 唐, 650-676). 등왕각시병서(滕王閣詩 並序).
 주 10) 東湖春水碧於藍 白鳥分明見兩三 柔櫓一聲飛去盡 夕陽山色滿空潭. 김영상(2001).
 주 11) 保閑齋集卷第五 七言小詩 正卿以猗鷗亭詩來示 有感偶吟書呈. 신숙주(申叔舟, 1645년). 보한재집(保閑齋集)

인용문헌

1. 겸재정선기념관(2009). 겸재 정선. 서울.
2. 고양문화재단(2008). 오늘로 걸어 나온 겸재. 서울: 겹쳐복스.
3. 김영상(2001). 서울 육백년-한강·한강유역. 서울: 대창당.
4. 김지희(2006). 조선시대 한강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5. 노재현, 박태희(2011). 누정제영시와 고지도에 투영된 청심루와 여주팔경의 경관구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2) : 73-80.
6. 노재현, 박태희, 신상섭, 김현욱(2011). 기문(記文)을 중심으로 고찰한 임대정원림의 입지 및 조영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4) : 14-26.
7. 문향원(2010).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서울시사편찬위원회(2001). 한강의 어제와 오늘. 서울시.
9. 서울시사편찬위원회(2012). 서울의 누정. 서울시.
10. 소현수, 임의제, 최기수(2007). 누정원림을 통해 본 전통요소의 생태적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2) : 108-126.
11. 소현수(2011). 차경(借景)을 통해본 소쇄원 원림의 구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4) : 59-69.
12. 신정일(2002). 한강역사문화탐사. 서울: 생각의 나무. p. 300.
13. 심승희(2004). 서울 시간을 기억하는 공간. 서울: 나노미디어. pp. 183-186.
14. 여화선, 서주환, 김수연(2012). 도심 역사문화경관의 경관이미지 및 시각적 선호도 분석-경복궁 외부조망점을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2(3) : 11-20.
15. 윤진영, 이종목, 심경호, 이현군, 배정환, 한동욱, 안창모, 박철수(2009). 한강의 섬. 서울: 마티. pp. 47-94. p. 126. pp. 204-227.
16. 이국진(2012). 명나라 사신들의 한강 유람과 문학적 형상화. 한국고전연구 제25집. 7-42.
17. 이성무(2011). 조선왕조사. 서울: 도서출판 수막새. p. 55. p. 180.
18. 이종목(2001). 16세기 한강에서의 연화와 시회. 한국시가 연구 제9집. 5-28.
19. 이종목(2006). 조선의 문화공간 1책. 서울: 휴머니스트. pp. 143-161.
20. 이종목(2008). 조선시대 어제의 창작양상과 그 의미. 장서각 제19집 (2008.6). 169-196.
21. 이찬영, 김한배(2010). 도시 대표경관의 인지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7(6) : 73-84.
22. 임석재(2005). 한국 전통건축과 동양사상. 경기도 파주시:북하우스.
23. 임승빈(2010). 경관 분석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p. 198-199.
24. 홍금수(2006). 전관장(箭串場)의 경관변화. 문화역사지리 제18권 제1호 102-134.
25. 황기원(2011). 경관의 해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6. Kevin Lynch(1960). The Image of the City. USA: The MIT Press.
27. 강남향토문화전자대전. <http://gangnam.grandculture.net>.
28.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ggcf.or.kr/html/history>.
29.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
30. 서울시지도. <http://gis.seoul.go.kr>.
31. 서울시문화복덕방. <http://culture.seoul.go.kr>.
32.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http://hangang.seoul.go.kr>.
33.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원 고 접 수 일: 2014년 4월 29일

심 사 일: 2014년 5월 11일(1차)

게 재 확 정 일: 2014년 5월 11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